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박취득 라우렌시오

(1769-1799)



충청도 홍주의 면전에서 태어난 박취득(朴取得)은 한양에서 교리를 배워 입교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1791년 신해박해 때 체포되어 심한 형벌을 당했지만, 조정의 명에 따라 풀려났다.

그러나 1797년 정사박해가 일어나 또다시 붙잡혔다. 갇은 형벌을 당한 그는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냈다. “옥에 갇힌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천주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결에 ‘십자가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이 발현은 약간 희미하기는 하였지만,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박취득은 1400대 넘게 매를 맞았고, 8일 동안 물 한 방울을 마시지 못하기도 하였다. 한번은 옥졸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옷을 벗긴 뒤 밖에 내던져 버렸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고,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다시 옥에 갇혔다. 이튿날 교우들이 그를 보니 모든 상처가 기적처럼 나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를 요술이라고 생각한 옥졸들이 결국 그를 처형했으니, 때는 1799년 4월 3일이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부활 제4주일 · 성소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33(32), 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3, 14, 43-52

화답송

시편 100(99), 1-2, 3, 5(◎3c 참조)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또는 ◎ 알렐루야.)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2독서

묵시 7, 9, 14-17

복음 환호송

요한 10, 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요한 10, 27-30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에제키엘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에제키엘 예언자의 무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부와 권력과 명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회 지도층이 갖추어야 할 높은 도덕성을 가리킵니다. 옛 이스라엘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 중에는 에제키엘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는 사제 집안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 백성을 이끈 예언자입니다. 사제 부즈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에제 1,3) 어린 시절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25세 되던 기원전 598년(또는 597년)에는 바빌론으로 끌려가 유배자로 살았기에, 그의 활동지는 옛 바빌론입니다. 그가 유다 임금 여호야킨과 귀족들과 더불어 1차 유배 때 끌려간 걸로 보아 명문세족에 속하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종일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 감추며(3,1; 12,2 등)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살았습니다.

그가 거주한 마을은 크바르 강 가의 텔-아비브 정착촌으로 보입니다(에제 3,15). 크바르 강은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이는 운하입니다. 에제키엘은 유다 원로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8,1; 20,1 등). 하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경고한 그와 다르게, 대다수 예언자들이 바빌론은 물러가고 평화가 오리라는 감언이설을 선포했기에(13,10), 유배자들은 에제키엘의 말을 달가워하지 않고 조롱거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2,6). “저자는 비유나 들어 말하는 자가 아닌가?”(21,5)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에제키엘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

면 자기 목숨이 위험해진다고 여길 만큼(3,16-21) 백성에게 큰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는 하느님께서 아내를 데려 가시고 애도조차 허용하지 않으셨지만, 이를 오롯이 견뎌냅니다(24,16-18). 이는 상처(喪妻)한 슬픔에 압도당한 에제키엘이 애도조차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기쁨이자 자랑인 성전이 파괴되는 고통에 애도를 잊게 되리라고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제키엘의 이런 고투에 종지부가 찍힌 건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입니다. 이때부터 에제키엘은 백성 사이에서 참 예언자로 인정받고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함락 전까지는 죄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없다며 심판을 예고했지만(1—24장), 망국 뒤에는 제2의 탈출 곧 바빌론 탈출을 선포하여 귀환의 희망을 심어준 것입니다(33—48장). 이렇듯 에제키엘은 이방인의 땅에서 유배살이하던 백성을 제2의 모세처럼 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듯, 그도 자신이 예언한 회복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온 귀환은 그로부터 수십 년 뒤인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한 이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예언자로 살며 소명에 투신한 에제키엘은 처녀의 몸으로 주님께 순종한 성모님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젊은 날 고향을 떠난 그는 바빌론에서 생을 다한 듯하며, 그의 무덤은 이라크의 힐라 마을 근처 알-키플에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교회, 다양한 표상들 안에 담기다

「교회헌장」 6항

「교회헌장」 5항에서 하느님 나라는 성사로서의 교회가 드러내는 실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성사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 나라의 계시를 직접이나 간접 표상들로, 곧 유목이나 농경 생활, 건축이나 혼인 등 우리의 삶에서 접하게 되는 표상들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교회헌장」 6항은 하느님 나라의 성사인 교회의 본질을 그러한 다양한 표상들로 소개합니다.

첫째, 교회는 ‘양 우리’ 혹은 ‘양 떼’로 표상됩니다. 유목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표상으로, 양 우리의 유일한 ‘문’이며, 양들을 기르시고 이끄시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요한 10장 참조).

둘째, 교회는 하느님의 ‘밭’입니다. 밭은 농경 사회의 표상으로 밭의 ‘농부’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그 밭을 ‘포도밭’으로 선택하셨습니다(마태 21,33-43 참조).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는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요한 15,1-5 참조).

셋째, 교회는 하느님의 ‘집’입니다. 그 집의 ‘머릿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마태 21,42 참조). 하느님의 집인 교회가 그 기초 위에 사도들을 통해서 지어졌고, 그 기초 덕분에 교회는 견고한 건물이 됩니다(1코린 3,11 참조). 또한 건물의 개념에서 하느님의 거처, 하느님의 장막, 지성소로서의 성전, 거룩한 도읍, 새 예루살렘 등이 교회의 표상이 됩니다.

넷째,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신랑인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기르고 보살피시며,

교회가 그리스도와 깨끗한 몸으로 결합하여 사랑과 신의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에페 5,21-33 참조). 또한 영원한 천상 은혜로 교회를 채워 교회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떨어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상 것을 추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때까지 교회의 생명은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랑인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라파엘로 산치오, 〈동정녀의 혼인〉, 1504년, 브레라 미술관(밀라노)

「교회헌장」이 이런 표상들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사람들 사이의 일치, 그리고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교회헌장」의 초안은 6항에 나오는 여러 표상들의 언급 없이 “그리스도의 몸”(7항)이라는 표상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6항의 표상들은 각각의 미비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풍부하게 드러냅니다. 교회는 다양한 표상들 안에 담겨있습니다. ☪

성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

- 무언의 고통을 조각하다

15세기 중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꽃핀 르네상스(Renaissance)는 중세의 신(神)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전환, 곧 휴머니즘과 이성적 사고 그리고 ‘고대 그리스-로마로의 회귀’를 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16세기 초중반의 라파엘로(Raffaello),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그리고 미켈란젤로(Michelangelo)가 있습니다. 일찍이 피렌체에서 미술교육을 받고 조각계에 입문한 미켈란젤로는 프랑스 생드니 교회의 라그롤라 대주교(Jean Bilhères de Lagrulas)에게 주문을 받아 <피에타>를 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카라라 지방의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걸작은 고전주의적 균형, 완벽한 조화와 절제미를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그가 23~24세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연민’ ‘경건한 마음’이란 뜻인 ‘피에타’(pietà)는 서구 미술에서 즐겨 다루어진 주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품에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모님을 표현한 작품이지요. 완벽한 인체 해부학적 조형성과 극적이면서도 절제된 표현은 소재가 견고한 대리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고 유연합니다. 드레스를 넓게 펼친 마리아는 안정된 피라미드 구도로 영적 존재감을 은은히 드러내고, 무릎 위에는 예수님이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이 깊은 슬픔에 빠진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작품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젊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이들이 연인으로 보인다는 거였습니. 이에 미켈란젤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우리 인간과 달리 원죄 없으신 성모님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이는 그분의 무염시태와 순결함을 보여주는 성스러움의 증거다.”

깊은 슬픔에 잠긴 마리아, 그분의 곧고 날렵한 콧선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Buonarroti Michelangelo), <피에타>, 1498~1499년, 대리석, 높이 174cm, 성 베드로 대성당(바티칸)

을 따라가면 살포시 다문 곱고 부드러운 입술에 이릅니다. 그저 침묵하며 안으로 삼킬 수밖에 없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머리에 드리워진 두건은 마치 화려한 레이스처럼 물결치며 사뭇히 얹혀 있고, 목 부분의 옷 주름은 고귀한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드라마틱한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기운을 잃은 상태이고, 그의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가 깊은 잠을 자는 듯 평화롭기만 합니다. 팔의 섬세한 근육과 힘줄, 마른 몸에 비치는 갈비뼈는 투명하게 드러나고, 아들을 힘주어 잡은 성모님의 손가락과 예수님의 몸을 두른 수의의 주름은 조형적 긴장감과 리듬감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잔혹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 듯 허공을 향해 들어 올린 성모님의 손까지... 모든 게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이 작품은 피에타의 고통을 증거합니다. 어느 각도에서도 허술함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함과 그 이면의 영적 울림을 발산하는 <피에타>,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십자가 비극의 현장에 초대되어 성모님의 고통에 함께합니다. 🕊



교구 소식

한마음 사계 피정 - 6월 (대침묵 피정)

일시 6/6(금) 16시 ~ 8(주일) 13시

주제 예수 성심을 닮은 신앙인의 삶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지도 김경진 베드로 신부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한마음 기도영성학교 - 초급·심화

렉시오디비나 묵상기도와 이냐시오 관상기도의 배움터

일정 초급 5/30(금)~6/1(주일), 심화 7/11(금)~13(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대상 기도를 배우고 싶은 누구나

지도 김경진 베드로 신부

회비 초급/심화 각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40-0018 (내선 201)

신청 ▶



중등부, 고등부 1~2학년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5/18(주일) 10시

장소 혜화동 대신학교

월간성서 <5월호> - 그리스도인 (제자와 사도)

일정 5/1(목), 8(목), 15(목) [총 3회 업로드]

강사 최종훈 토마스 신부 (가톨릭목포성지 산정동 성당)

시청 ▶



[전시] 엄마생각, 하늘생각 도예展 - 김종숙 요안나

일시 5/10(토)~23(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 공휴일, 월요일 휴무

청년센터 프로그램 - 에드윈 김 바실리오 피아노 연주회

일시 5/16(금) 20시~22시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장항동)

대상 만 15~40세 (선착순 40명)

회비 5천원

신청 ▶



청년센터 프로그램 - 피정 '바오로딸 Hope Stay'

일시 5/16(금) 20시~21:30,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동)

5/30(금) 20시~21:30,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장항동)

대상 만 15~45세 (선착순 40명)

회비 무료

신청 ▶



전신자 성경 읽기 5/11(주일)~17(토) : 요한 8,48-59



5/31(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4월 6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2차 헌금으로 177,775,170원이 모여졌습니다.

이에 교구 지원금 22,224,830원을 더해, 총 2억 원을 안동교구로 보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5/16(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예수님 족보의 이방 여인들 - 라합과 롯

강사: 정영화 요셉

문의: 010-2127-0032

3.4지구 성령기도회 영성 피정

일시: 5/16 (금) 13시~16:30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 강의, 미사, 안수

강사: 최민호 마르코 신부 (양주순교성지)

문의: 010-3790-0496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5/23(금)~25(주일)

효소단식: 5/29(목)~6/1(일), 6/26(목)~29(주일)

안수교 수녀와 함께하는 구역여행 예레미야서:

6/6(금)~8(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가톨릭축제 마음 치유 페스타

일시: 7/11(금) 15시 ~ 13일(주일)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상센터

회비: 25만원 (접수 후 입금)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의정부교구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일시: 5/13(화) 08:50~16:30

장소: 주엽동 성당 대성전

강사: 김재덕 베드로 신부 (대전교구)

문의: 010-7239-0957

서강대학교 - 거룩한 만남의 순간들

일시: 5/19(월) 14시~16시 (강의와 미사)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강사: 김산춘 요한 신부 (예수회)

주제: 마리아상과 검은 성모님

문의: 02-705-4711 (무료)

성령 안에서 치유회복 피정

날짜: 6/14(토)~15(주일)

장소: 아론의집 (의왕시)

주제: 새롭게 하소서

강사: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

회비: 12만원 (선착순 100명)

문의: 010-6366-4022 김성철

제23회 젊은이 성령축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 15,13)

일시: 5/25(주일) 10시~17:30

장소: 인천교구청 보니파시오관

대상: 청소년, 청년 (가족 참여 가능)

회비: 1만원 (사전접수 시 중식 제공)

문의: 010-9574-6469

매일 첫화요 오후 피정 - 토당동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5/13(화), 6/10(화) 14시~16:30

장소: 마리아니스트 센터 (덕양구 호수로 76-13)

내용: 묵주기도, 성체조배, 영성강의, 미사, 안수

강사: 장희성 프란치스코 신부 (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문의: 010-9585-6283 (무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날짜: 5/21(수)~23(금) [성모의밤]

5/24(토)~26(월), 6/2(월)~4(수)

추자도포함: 5/17(토)~20(화),

6/21(토)~23(월), 7/1(화)~4(금)

접수: 064-796-4182, 02-773-1455

강우일 주교와 함께 “푸른꿈 제주섬” 피정

제주섬에서 섬, 순례(성지,자연), 말씀 초대

날짜: 6/9(월)~11(수), 9/18(목)~20(토),

10/30(목)~11/1(토), 11/11(화)~13(목)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한국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가족, 단체, 본당 사목위원 및 구반장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추자도포함성지순례: 5/26(월)~29(목), 6/1(주일)~4(수)

생태순례: 5/20(화)~22(목), 9/20(토)~22(월)

추자도포함생태순례: 6/15(주일)~17(화)

문의: 064-756-6009, 02-773-1463



교육 · 모집 ▶▶

사이버성경학교 ‘히년’ 이벤트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

신청: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365일 신청,

전과목 50% 할인, 다양한 무료 콘텐츠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상시 모집

대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분

자격: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또는 표준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분

시간: 평일 주1회, 4시간 (요일 및 시간 별도 협의)

문의: 02-2030-4297

예수회 영성연구소 무료 강좌

일시: 5/22(목) 14시~16시

장소: 예수회 3층 성당

주제: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 (예수회)

문의: 02-3276-7799, iispress12@gmail.com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주소: 중앙우체국 사서함5234호 (서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사목자·활성가 양성연수(CAFE) 개최

주제: 청소년 사목의 기초와 핵심

날짜: 6/16(월)~18(수)

장소: 복자사랑 피정의 집

대상: 사제, 수도자, 청소년분과, 자모회대표, 교리교사

회비: 30만원 (선착순 40명)

문의: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원어 성경 기초반 - 히브리어, 그리스어

일시: 7월부터 매주(수) 19:30~21:30 [12개월]

회비: 30만원 x 4회 (총 120만원) - zoom 강의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 (작은형제회)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통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접수: 5/21(수)~30(금) / 전형: 6/14(토)

문의: 02-705-8668~9

2025 봄 배동제자교육

복음적 인생관을 찾아 떠나는 3일의 여정

날짜: 6/6(금)~8(주일)

장소: 노들담교육관 (종로구 가회동)

주제: 소비사회에서 그리스도 따르기

강사: 길벗사제단 외

문의: 010-6750-2144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주일 16시 및 대축일 미사 등

대상: 20~40대 가톨릭 신자

오디션 : 5/18(주일) 17시, 명동대성당

※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 (pc버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접수: 4/28(월)~5/11(주일)

면접: 5/30(금),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ged.catholic.ac.kr/ged/index.do

마두동 성당 사무원 모집

대상: 주말근무, 전산업무,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방문 및 우편 (서류심사-면접 후 선발)

문의: 031-908-5901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문의: 010-9842-8818 (나이 제한 없음)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장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신입사원 공개 채용

분야: OTT운영, 편집기자, 광고마케팅, 방송경영

접수: 5/11(주일)까지

문의: 02-2270-2114, www.cpbcc.co.kr 참조



안내 · 기타 ▶▶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캠프 모집

미국·아일랜드 기숙사 학교, 초3~고1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재지오회 해외학교법인

히년 맞이 성모성지와 로마 순례

바뇨, 루르드, 파티마, 착한의견의성모 발현지와

로마 히년 순례길 - 7/7(월) 출발 (12일)

문의: 031-834-1262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낙산중창단>“임쓰신 가시관” 발표 40주년 기념 공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개최 축하 공연

일시: 5/30(금) 19:30

장소: 서울대교구 도림동 성당

찬조출연: 갯등중창단OB, 신상옥과 형제들

문의: 02-833-9439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캐나다: 토론토대 기숙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IVY리그 탐방

미국: 공립대 1위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등

영국: 교육 명문 옥스퍼드 기숙캠프,

손흥민 토트넘, 해리포터, 서유럽투어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미리 준비하는 추석연휴 순례

10/3(금)~13(월) 중앙아시아 (498만원)

10/7(화)~12(주일) 필리핀 (205만원)

10/7(화)~10(금) 중국 상하이 (168만원)

10/7 (화)~10(금) 홍콩, 마카오 (189만원)

문의: 02-2281-9070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8(목) 이탈리아 성체거적성지 (9일, 아시아나)

지도: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9/15(월) 나가사키 (4일, 119만원, OZ)

9/8(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495만원)

9/16(화) 성모님 발현지와 스페인 북부

(12일, 535만원, KE)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1/2(주일), 11/9(주일) 히년 이탈리아 (7일, 2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6/3(화) 초기교회의 발자취-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70만원)

7/4(금) 성모님 발현성지 4개국 (12일, 560만원)

9/4(목) 북유럽의 진주-발트 3국 (9일, 460만원)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9/21(주일) / 비용: 599만원 (+2,1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순례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5(월) 프랑스 리지외, 루르드 (12일)

9/17(수)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9/24(수) 히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20(월) 시나이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1/12(월)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KakaoTalk P 플러스친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천주교의정부교구

우리 교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교구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성 소 모 임	살레시오회	매월 넷째(토) 14시	대림동 수도원	010-6221-3520
	예수수도회	수시 (전화상담 후)	수도회 (서울)	010-7485-1964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17(토) 14시	개화동 수도원 (서울)	010-3800-1579

전구 (Intercessiones)

감사기도 중 ‘전구’(轉求) 부분에서 사제는 이 세상을 떠난 이들과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청합니다. 전구 기도의 대상에는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까지 모두 포함되는데, 이로써 미사가 모든 이를 위한 구원의 성사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감사기도 제2양식의 전구는 짧지만 매우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교회를 위한 기도,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산 이를 위한 기도와 이에 연관된 성인들을 기념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①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와 저희 주교 ()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사제는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일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를 이끄는 교황과 주교를 기억합니다. 한편, 이때 언급되는 신분은 오직 성직자이지만, 이는 성직자가 교회를 대표한다는 전통에 따른 표현일 뿐, 의미상으로는 수도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전체 교회를 뜻합니다.

②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오늘)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신 주님의 종 ()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서는 특별한 고유 전구 기도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 곧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주님을 몰라 신자가 되진 못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죽은 이들이 분명 주님의 자비를 누릴 거란 희망이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③ 산 이를 위한 기도와 이에 연관된 성인들을 기념하는 기도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끝으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입어 이미 천상 행복을 누리는 성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영원한 삶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인들 가운데선 성모님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다음 성 요셉, 이어서 사도들과 모든 성인 순으로 언급됩니다. 참고로, 교황청 경신성사성(현 경신성사부)은 2013년 5월 1일에 발표한 교령에서 감사기도 제2, 제3, 제4양식에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라는 구절을 넣도록 하여 현재 감사기도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행 주 성 당  성모몽소승천	토 요 일	19: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5월 12일 요안나: 김순자

5월 16일 시몬: 신재만

전례

■ 두봉 주교님 묘소 봉안 경당 미사

본당의 날을 맞아 두봉 주교님과 함께 김수환 추기경 추모 공원에서 미사를 봉헌하려 했던 행사를 주교님의 선종으로 인하여 주교님 묘소를 찾아 함께 추모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일 시: 5월 18일 주일 12시 미사

■ 성소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성소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본당공지

■ 5월 성모 성월 묵주 기도

5월 한 달 동안 매일 미사 1시간 전에 성당에서 묵주 기도를 봉헌합니다. 조금 일찍 오시어 묵주 기도 봉헌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에는 오후 3시에 묵주 기도 봉헌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목협의회 월례회의

일 시: 5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 성모의 밤

일 시: 5월 24일 토요일 저녁 미사 전

■ 5월 18일 주일 본당 미사

두봉 주교님 묘소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5월 18일 주일 행주 본당에서의 미사는 오전 9시, 11시 평상시와 같이 그대로 봉헌합니다.

우리들의 정성 (4월 28일 - 5월 04일)

교 무 금	9건	1,870,000원
주 일 헌 금		1,079,000원

■ 감 사 헌 금

정승옥	100,000원	김지민	10,000원
-----	----------	-----	---------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5월 11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권우석(라파엘), 정윤정(라파엘라)	
05월 18일	주송자	오정화(아네스)
	최성권(야고보), 김민숙(골롬바)	